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49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현미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27:1-12	인 도 자
설 교	평안을 포기하고 얻은 편안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69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안미나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오후 7시 (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2월 2일 제70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신앙에 있어 가장 많은 오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축복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을 통해 얻어야 할 복이 있다면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농간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면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평안과 편안입니다. 저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편안은 세상이 주는 유사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과 편안은 비슷해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평안하다고 편안한 것 아니며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것은 영혼도 평안하고 몸도 편안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지는 경우보다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우리 삶에는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요 고민입니다. 이 때 평안과 편안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대부분은 편안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평안함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얻지 않은 편안함은 절대로 평안함을 가져다주지 못함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27:4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블레셋으로 도망 온 것이 잘 한 일 같았을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삼상27: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의 삶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한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이 잘 한 일처럼 보입니다.

사실 평안을 포기하고 편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얼마 동안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부두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가드에서 육신은 편안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한 다윗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 얻었지만, 이제 평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단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기회이기 보다 시험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얻은 블레셋 시글락은 당장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얻었지만 문제는 받았으면 받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어 일 년 넉달을 삽니다. 어떻게 신임을 얻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신임을 얻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인근 성읍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하고 약탈함으로 그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의 식량과 물품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라고 허위보고를 합니다.

잘못된 시작은 다른 잘못을 유발시킵니다.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안을 포기하고 세상의 편안을 구한 자에게 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거짓말로 신임을 얻지만 그 신임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편안함을 얻은 다윗에게 세상은 비굴함을 요구합니다.

이 모습은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있던 다윗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는 담대하던 모습과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비겁하게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몸은 편해지고 마음은 점차 황폐해지는 겐! 이것이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의 모습이요 결과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예배후 사역보고 및 월례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사역보고를 홈페이지 사역 보고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탁 교제 후 김상안 집사님 개업감사예배를 사업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남관희 집사님이 한국방문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5. **심방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12월 23일 주일예배는 성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7. **12월 30일 주일예배 후 2007년 당회로 모입니다.**
8. **12월 31일 밤11시에 송구영신예배로 드립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00.00	
감사헌금:	$280.00	
주일헌금:	$12.00	
특별헌금:	$0.00	**합 계: $392.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